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줄리안 퀸타르트, 홍다경, 박정훈, 유정길.

쓰레기 먹는 코끼리·녹는 빙하…인간 욕망이 만든 위기들

대행선연구원 제23회 계절발표회
줄리안, 홍다경, 박정훈, 유정길 등
환경운동가, 인플루언서 발표 진행

청소년 · 청년들 '기후우울증' 경험
미래세대 자원 가져다 쓰는 현 시대
분리 · 인간 아닌 연기 · 생명 중심
"3%가 바뀌면 세상 바꿀 수 있다"
혜솔 스님 "사찰 내 비닐 사용 지양"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제23회 계절발표회에 참석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아래 가운데),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내빈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중 70%가 소·양·염소를 키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의 절반만 줄이면 정말 많은 토지를 지구와 생명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줄리안 퀸타르트 노노샵 대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입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후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코끼리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을 주워 먹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 박정훈 KBS PD

"현재 기후위기는 20%의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가 만들어 낸 것들입니다.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줄리안 퀸타르트 노노샵 대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동대표


박정훈 KBS PD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과 불교적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는 학술 연구 논문 발표 형식이 아닌 기후 및 환경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을 듣는 심포지엄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육식 줄이면 달라지는 것들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줄리안 퀸타르트 제로웨이스트샵 노노샵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 :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결정적 변화들과 세계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육식 줄이기 등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벨기에 시골 마을에서 살았고, 어릴 때 부모님이 유기농 가게를 운영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재는 비건을 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밝힌 줄리안 대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육식 소비의 축소를 제안했다.

줄리안 대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지 중 소·양·염소 등을 방목하는 토지가 70%, 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가 13%에 달한다. 인간이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농지는 17%에 불과하다. 줄리안은 "육식을 위해 방목되는 가축들이 줄고, 이를 위한 토지가 준다면 해당 토지를 지구와 생명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사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육식 섭취가 줄고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 있는 버거킹의 경우 비건 와퍼를 판매하고 있다"며 "채식을 하면 힘이 없다는 것도 편견이다. 노박 조코비치와 닉 키리오스 등 유명 테니스 선수들도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디빌더 패트릭 바부미안도 고기를 끊고 채식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우루과이나 브라질 등에서는 90% 이상을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한다.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률이 점차 증가 중"이라며 "중국과 미국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미래세대에 피해 집중

환경인플루언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동대표는 '청년이 보는 지구위기와 샛별'을 통해 청년의 시점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살폈다.

홍 대표는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병이 있다"면서 기후위기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와 인류에게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기후우울증'을 소개했다. '기후우울증'은 2017년 미국심리학회에서 우울장애의 일종으로 규정했고 WHO에서는 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홍 대표는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청소년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된다'는 청소년이 88%에 달했고,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을 고민한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2021년 '청년이 생각하는 2030년의 세계'에서는 세계 청년들의 61%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꼽았다.

홍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집중된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본다"면서 "1992년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에는 '기후 시스템을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형평성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돼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쓰레기 먹는 코끼리를 아시나요

박정훈 KBS 교양다큐2국 책임PD는 '자연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지구 생태계 위기 : '플라스틱 코끼리'와 대기획 '빙하'를 중심으로'에서 생태계 위기의 참혹한 현실을 영상과 함께 전했다.

박 PD는 2023년 방영한 '플라스틱 코끼리'에서 불교국가 스리랑카 암파라 팔라카두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죽어가는 코끼리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지에 수거 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 코끼리들이 찾아와 쓰레기 음식들을 먹는다"면서 "코끼리가 아무리 영민해도 매립된 음식을 찾아 먹다가 비닐을 같이 먹게 된다. 먹은 비닐이 코끼리의 장을 막아 굶어 죽게 만든다. 1년에 1~2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스페셜-불편한 질문'을 통해서는 인도 델리의 쓰레기산의 폐해를 전했다. 1984년 설치된 델리 발스와 매립지는 이미 2002년 용량을 초과했고, 메탄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우기 산사태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자국의 쓰레기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PD는 "스리랑카의 경우 자국 내 재활용 처리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형국이었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약소국에 수출해 떠넘기고 있다. 가난한 국가일수록 인간도 동물도 더욱 환경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쓰레기 식민주의'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빙하기, 간빙기의 반복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이다. 빠른 기후변화에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여도 지구는 지속된다. 인류만 사라질 뿐"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변화는 3%가 주도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생태위기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불자들의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유 대표는 현재 기후위기가 20%의 잘사는 사람으로 인해 초래됐음을 분명히 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4.4%(3억5000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세계 에너지 중 23%를 소비하고 있다. 그는 "부유한 20%가 세계 에너지의 82%를 소비하고 있다. 지구는 가난한 80%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가난한 이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현재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가 △분리적 사고 △자연무한주의 △피해의 외부화 △인간중심주의 △직선적 시간관 △공공재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어 기후위기를 야기했음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전환을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인간과 자연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 분리적 사고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연기적 사고로, 편익은 자신이 누리고 피해는 가난한 국가와 사람에게 전가하는 '피해의 외부화'는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의 내부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토지와 자원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3%의 변화'를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은 편리한 실천이겠는가 불편한 실천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편하게 쌓는 공덕은 없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며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닷물의 소금은 3% 정도다. 사회를 변화하는 데에도 3%의 인구만 있으면 된다. 3%만 바뀌면 세상은 뒤집어진다"면서 "모든 사회적 변화는 한 사람이 시작한다. 한마음선원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변화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절발표회에서 이뤄지는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는 발표회 주제에 맞춰 '지구를 위한 한마음선원 공생 실천: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을 주제로 혜눌 스님(지구사랑 작은실천 환경교육사)이 발표했다. 이날 혜눌 스님은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에서 시작된 EM 활용 과정과 활성화 및 대중화 사업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사찰 내 비닐 사용과 의류 소비를 줄일 것을 대중들에게 제안했다.

혜솔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불교환경연대가 지정한 녹색사찰이지만 정작 떡 등 공양물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 박 PD님의 발표를 통해 비닐 사용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됐고, 저의 업보를 인식하게 됐다"면서 "한마음선원부터 비닐 사용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들께는 불필요한 의류 구입을 삼가실 것을 제안드린다. 선원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오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입한 옷들만으로도 충분히 단정히 입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구입은 자제해 달라"며 "한마음선원의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다 합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가 이웃과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